

광주·전남 기업 4곳 중 3곳 변동금리...“대응책 없다” 76%

연속되는 금리 인상에 이자부담 가중... 속도 조절·정책자금 지원확대 등 요구

광주·전남 기업 4곳 중 3곳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가운데 지역기업의 97.5%가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영 활동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초 대출금리가 4% 미만인 기업 비중은 74.2%에 달했지만 지난달 기준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0.8%)은 5% 넘는 금리를 감당하고 있었다.

13일 광주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지역기업 영향 및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상의는 지난 9월26일부터 30일까지 광주·전남 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응답 기업 4곳 중 3곳(75.0%)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 최근 5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중

금리 급등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기업 절반 이상(53.3%)은 담보대출을 받았고, 신용대출(26.7%)과 보증 대출(20.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업의 대다수(97.5%)는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영 활동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응답자 가운데 ‘매우 영향이 클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0.0%에 달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자금 사정 악화’(67.5%·다중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부진(36.8%)을 걱정하거나 ‘설비투자 지연·축소’(10.3%), ‘사업

추진 지연’(6.8%), ‘회사 자산가치 하락’(0.9%) 등도 우려하는 점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업들에 적용된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기업대출 금리가 ‘4% 미만’이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74.2%에 달했지만, 지난달에는 이 비중이 20.8%로 3분의 1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금리가 ‘5~6% 미만’이라는 응답률이 34.2%로 가장 많았고, ‘6% 이상’을 내는 기업 비중은 16.6%에 달했다.

기업 45.8%는 손익분기 상 감내할 수 있는 최대 금리 수준은 ‘4% 미만’이라고 답했다.

지역 기업들이 내야 할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도 응답 기업들의 75.9%는 “아직 대응책을 마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응 또는 대응 준비 중’이라는 비율은 24.1%에 불과했다.

금리 인상에 대응하거나 대응 준비 중이라고 답한 기업들은 ‘비용 절감 등 비상경영체제 도입’(41.4%·다중응답) 또는 ‘차입금 상환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31.0%) 등을 주요 방안으로 꼽았다. ‘대출 상환유에 신청’(20.7%), ‘고정금리로 전환’(6.9%), ‘투자 규모 감소’(6.9%) 등이 뒤를 이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 속에서 기업들의 자금 수요는 많아졌지만, 응답 기업 5곳 중 2곳(38.3%)만 올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1.7%는 올해 정책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 대출받지 않은 이유로는 ‘정책자금 수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43.2%·다중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 지역 기업으로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17.9%), ‘정

책자금 지원 확대’(16.1%), ‘금리 차액지원’(14.3%), ‘기업 여건에 맞는 대출 지원 세분화’(14.3%) 등을 요구했다.

이외 ‘기업지원책 확대’(7.1%), ‘고정금리 전환 지원’(7.1%), ‘정책자금 수혜 대상 확대’(7.1%), ‘정책자금 금리 인하’(5.4%), ‘대출 규제 완화’(3.6%), ‘정책자금 대출절차 간소화’(3.6%), ‘환율 조절’(3.6%) 등 답변도 있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와중에 금리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지역기업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고금리·고환율 등의 경기 불확실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리·환율 안정과 함께 정책자금 지원 및 지원자격 세분화 등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기업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전·월세 내리고 국민연금 저당 잡힌 ‘실버’

광주·전남 ‘실버론’ 10개월간 264명 이용... 1인당 650만원 빌려

최근 10개월 동안 광주·전남에서 국민연금을 저당 잡혀서 긴급자금을 빌린 ‘실버론’ 이용자가 26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론 이용자들은 1인당 평균 650만원 가량을 빌렸는데, 전체 대출금액의 60%가량은 전·월세 보증금을 내는데 쓰였다.

고령층이 치솟는 전세값과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연금을 끌어다 급한 불을 끄고 있지만 최근 ‘금리 급등기’를 맞아 실버론 이자율이 지난해보다 2배 뛰면서 위기 가구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누적 이용자는 광주 1844명·전남 1500명 등 3344명으로, 지난해 10월 말(3080명)보다 8.6%(264명) 증가했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분할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에게 긴급자

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지난 2012년 5월 도입됐다. 이용자 대다수는 연금공제 방식으로 대출을 갚는다.

최근 10개월 동안 ‘실버론’을 이용한 광주 145명·전남 119명 등 264명은 17억2340만원을 빌렸는데, 1인당 650만원 가량을 대출받은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평균 대출액은 광주 640만원·전남 670만원으로 나타났다. 실버론 운영 이후 10여 년간 광주·전남지역 평균 대출액은 490만원 가량으로, 최근 들어 대출금액이 더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개월간 광주·전남 실버론 이용 금액을 용도별로 보면 전·월세 보증금 명목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820만원이었다. 이외 의료비 490만원, 배우자 장제비 800만원, 재해복구비 1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실버론 이용자의 절반(50.4%)인 133명은 의료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다. 전·월

세 보증금이 47.0%(124명), 배우자 장제비 2.3%(6명), 재해복구비 0.4%(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대출금액 비중을 나눠보면 전·월세 보증금이 59.2%(10억2000만원)를 차지했고, 의료비 37.4%(6억4500만원), 배우자 장제비 2.8%(48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실버론은 연대보증이나 담보가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고령 수급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상환 원리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다.

단 긴급자금 용도로 대부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용도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연체 이자율은 대부 이자율의 2배가 적용된다.

올해 4분기 이자율은 3.40%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면서 최근 3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 같은 분기 기준 2020년 1.12%, 지난해 1.69%이었던 이자율은 올해 들어 2~3배 수준으로 뛰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빛가람 청년문화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공공기관·민간단체 등 27곳이 참여한 ‘8회 빛가람 청년문화제’(사진)가 최근 마무리됐다.

전력거래소는 올해 8번째로 열린 ‘빛가람 청년문화제’가 닷새 동안 광주·전남 일원에서 진행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행사는 27개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로 구성된 ‘빛가람청년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난 2015년 6월 출범한 뒤 해마다 청년문화제를 열고 있다.

참여 기관들은 기관 특색을 살려 청년 캠페인과 임직원 교육, 공모전, 영화제 등을 진행했다.

최근 참여 기관들은 광주 송정역과 나주역 등을 찾아 시민들에게 공익신고 보호제도를 홍보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력거래소 하반기 공채... 28일까지 접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인 전력거래소가 하반기 공채를 진행한다.

전력거래소는 오는 28일 오후 2시까지 전력거래소 채용홈페이지(kpx.saramin.co.kr)에서 입사 지원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신입직 8명, 경력직 6명, 별정직 1명, 계약직 1명 등 16명이다.

신입직원의 경우 사무직(회계) 1명, 기술직 7명(전기 3명, IT 2명, 건축 1명, 전기-제주 1명)을 뽑는다.

경력직·전문직의 세부 모집인원은 전력경제(박사) 1명, 산업안전관리 1명, 정보보안 1명, 데이터 엔지니어 1명, 기상예보 1명, 기상모델링

1명이다. 별정직은 보건관리자(반일제) 1명이고, 계약직은 건설현장관리·제주 1명이다.

전력거래소는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이번 공개채용에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지원서 접수 시에 나이, 성별, 출신학교, 출신 지역 등의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다.

사회적 형평성 채용 확대를 위해 보훈대상자 2명, 장애인 1명을 채용할당제로 채용할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우대하는 가점제도를 시행한다.

채용절차는 서류 전형→필기 전형→면접 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주식 거래대금 1조 넘게 빠져

9월 4조8841억 거래... 전달비 23.1% 감소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영향으로 광주·전남 주식 거래대금이 한 달 새 1조원 넘게 빠져나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연속 단행과 환율 급등으로 미 달러가 비싸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9월 주식거래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 주식 투자자들의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은 4조8841억원으로, 전달(6조3494억원)보다 23.1%(-1조4653억원) 감소했다.

지역민들의 주식 거래는 코스피 시장에서 더 위축됐다.

광주·전남 코스피 거래대금은 3조5500억원에서 2조6200억원으로, 한 달 새 26.2%(-9300억원) 줄었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2조7900억원에서 2조2500억원으로, 19.4%(-5400억원) 감소했다.

코스피 16개사·코스닥 22개사 등 광주·전남 주식 상장법인들의 시가총액은 한 달 새 2조원이 날아갔다. 지역 상장사들 시총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2021억원(-6.4%) 감소하고 코스닥에서

8437억원(-28.4%) 줄어드는 등 총 2조585억원(-9.4%) 감소했다.

코스피에서는 재무구조가 개선된 다이나믹디자인 시총이 71억원(30.3% ↑) 증가했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운영자금 등 약 200억원을 조달하고 자 제3차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다이나믹디자인을 뺀 대우에이텍(-268억원), 금호건설(-18억원), DSR제강(-161억원) 등 나머지 기업 모두 시총이 전달보다 줄었다.

코스닥에서는 전달과 시총이 같았던 제이웨이를 제외한 21개사 모두 전달보다 시총이 감소했다. 박셀바이오 시총이 4703억원 줄며 가장 높은 감소율(-43.4%)을 나타냈고, 위니아(-275억원), 위니아에이드(-386억원) 등도 시총이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겨울옷 준비 행렬 일교차 큰 날씨가 지속되면서 오는 16일까지 광주신세계 지하 1층 스페셜스테이지에서 열리는 겨울 의류 기획전에서 구매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신세계 의류 매장들의 겨울 외투는 90%가량 입고 완료된 상태다. <광주신세계 제공>

코스닥 연저점... 2년 5개월만에 최저

코스피가 13일 2160선으로 내려앉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9.60포인트(1.80%) 내린 2162.87에 장을 마치며 하루 만에 22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2998억원을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07억원, 1924억원을 순매수했다.

옵션만기일을 맞이해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1조6810억원을 순매도해 지수에 부담을 더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증가보다 6.4원 오른 1431.3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은 곧 발표될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를 앞두고 투자심리가 위축된 분위기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0.08포인트(2.99%) 내린 651.59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2020년 5월4일(641.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12억원, 46억원을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홀로 298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거래대금

은 각각 6조9664억원, 5조3635억원이었다.

국고채 금리는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경계심이 짙어지면서 다시 일제히 상승했다. 금리 상승은 채권가격 하락을 뜻한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9.6bp(1bp=0.01%포인트) 오른 연 4.203%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4.239%로 12.9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0.3bp, 8.6bp 상승해 연 4.221%, 연 4.197%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4.127%로 8.9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6.2bp, 5.8bp 상승한 연 4.002%, 연 3.928%를 기록했다.

이날 채권시장은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 출현으로 급락했던 금리 하락 폭을 상당 부분 되돌려놨다.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 내 경계심이 확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지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 9월 지수 상승률을 8%대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62.87(-39.60)
↓ 코스닥	651.59(-20.08)
↑ 금리(국고채 3년)	4.203(+0.096)
↑ 환율(USD)	1431.30(+6.4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